

EU 선지동산

2021. 가을호 (창간호) | 발행인 김성수 | 편집인 나삼진 | 편집 ORANGE SIGN

여호와를 바라보자!



김성수 총장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개혁주의 신학과 세계관을 구비한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이근삼 박사님께서 25년여 전에 예반 겔리아대학교(Evangelia University; 이하 EU)를 설립하셨습니다. 학내의 어려운 여러 여건 가운데서도 EU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이셨던 이근삼 박사의 헌신과, 뒤를 이어 2대 총장 신현국 박사의 수고, 그리고 교직원들의 한결 같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후에서 제미 고신총회 산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와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U는 계속하여 이 학교를 설립하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면서 복음의 빛을 갠 선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EU의 좋은 소식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위해서 <EU 선지동산> 소식지를 발간하 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 보면서 EU를 개혁주의 목회자 양성의 선지학교로 든든히 세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600송의 기마병을 이끌고 바로 왕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았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략,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려는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인간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막강한 바로의 군대도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곤고함이 닥쳐올 때, 그리고 우리가 최신타 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다. 오늘 우리도 건강, 자녀교육, 사업, 인간관계, 학교 운영 등 칠죽같이 민감한 절망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 그분의

섭리와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용출한 원망과 부질없는 한숨을 함부로 내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EU 공동체 구성원들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기 12:1-4a



최갑중 박사
(Evangelia University 교수 · 신약학)

밖에서 본 집 모습이 아무리 웅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 구조와 내부를 보지 못한다면, 그 집에 대하여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집에 있어서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성경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경 전체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경 전체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우리는 네 차례에 걸쳐 성경 문을 열고 성경 전체 꿰뚫어 볼 수 있는 몇몇 핵심 성경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2:1-4a이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축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을 담고 있는 창세기 12:1-4a는 창세기 안에서는 물론, 신구약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창세기 12:1-4a의 본문은 성경 전체를 돌로 나누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다. 앞 부분인 창세기 1-11장을 보면,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의 범죄와 타락, 그들의 범죄로 인한 죄와 죽음의 지배, 천지 만물의 오염과 타락, 이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가정의 구원, 노아 후손들의 바벨탑 건설과, 그리고 이에 하나님의 바벨탑 심판과 노아 후손들의 땅에 흩어짐이 차례차례 펼쳐진다. 그리고 그

뒷 부분인 창세기 13장부터 계시록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정착,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집트 이주와 출애굽사건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형성,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멸망, 아브라함 후손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아브라함 후손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구사권, 부활한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를 통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선교, 어린양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의 정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펼쳐진다.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1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나타난다: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12:2a); 2)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12:b), 3)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12:c). 두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되라”(12:2d)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어 역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나타난다: 1)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13:3a), 2)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하겠다”(12:3b), 3)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12:3c)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이 나타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12:4a).

그런데 본문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다시 살펴보면, 전체 본문의 초점은 3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12:3c)에 모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점에서 확인된다. 첫째, 12:1-4a에 등장하는 단어 중 네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복”인데, 최종적이며 그리고 결판적인 복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창 18:18; 22:18; 26:4; 28:14),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으로 요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8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방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되는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든 이방인(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창 12:3, 갈 3:8)를 통해서 먼저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다(참조 갈 3:14).

첫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마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작한다(마 1:1). 그리고 마태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28:19)는 명령으로 끝을 맺는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전체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에 있다는 것이다. 신구약성경의 마지막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급한 “모든 민족”,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한 “모든 민족”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어린양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위해 죽으셨으며(5:9), “모든 민족”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2:26; 13:7),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셨으며(15:3),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12:5; 19:15). 그래서 어린양 메시아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6:9; 15:4), “모든 민족”이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10:11; 14:6), 그리고 “모든 민족”이 회복(구속)이 된다(21:24, 26; 22:2). 이처럼 사도 요한은 창세기 12:3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어린양 메시아가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됨을 강조한다.

창세기 12:1-4a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마지막 부분은 12:4a에 있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문구이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히브리어 11:8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로마서 4장에 있는 바울의 언급,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 후손이 이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4:18)는 말씀에 근거하여, 마치 바울이 아브라함의 순종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그 점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심히 오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어느 순간에도 순종 없는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의 사역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한다. 그런 다음 다시 로마서 결연 부분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16: 25-26)고 말하면서 이 점을 재확인한다. 여기 “믿어 순종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믿음 = 순종”을 뜻할 만큼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복음에 대한 약속(구약)과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2:1-4a는 이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창세기 12장의 본문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가 예수를 통한 인류와 전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복음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창세기 12:1-4a를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핵심적인 성경구절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야고보는 바울과 다르게 가르치는가?



변종길 박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 신약학)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고보는 성도의 실생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과 분리된 행함, 믿음과 관계없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의 관심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야고보서 2장의 주제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개역개정판)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번역은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너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곧 이제부터는 ‘행함’에 대해 말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은 ‘행함’에 대해 말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외모로 취함으로 가지지 말라.”가 된다. 여기서 ‘믿음’이 목적어이다. 곧,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외모로 취함으로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곧, 차별함으로 가지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남아공화국의 L. 플로어(Floor) 교수가 1-13절을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 14-26절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본 것(Jakobus, 1992: 102)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영어로 표현하면 1-13절은 “faith without ...”, 14-26절은 “faith with ...”가 된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 첫째는,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 곧 차별함이 없는 믿음이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

말함과 행함의 대비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들 ‘믿음’과 ‘행함’의 대비라고 생각한다. 14절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에 대해 ‘믿음’과 ‘행함’이 대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 + 행함’)이 야고보가 말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legèi,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함’과 실제로 ‘행함’ 사이의 대비이다. ‘말하는 것은 거짓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 그런 말뿐인 믿음,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 16절 끝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eipèi, 말하며) 그 몸에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에서도 ‘말함’과 ‘주는 것’ 사이의 대비이다. 곧 ‘말뿐인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사이의 대비인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고 한다. 여기서 ‘그 자체가’(kath’ heautèn)는 ‘자기 안에서’(in itself), ‘스스로’, ‘원래부터’란 의미이다. 그리고 ‘죽은 것’(nekra)은 형용사로서 죽은 상태(deac)에 있는 것을 말한다. 중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다.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행함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행함이 보태지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다. 즉 원래부터 참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며 말뿐인 믿음이다.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죽은 것'이란 단어(nekra)도 행동사로서 계속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영혼 없는 몸은 처음부터 죽은 상태에 있었다. 곧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이다. 죽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참 믿음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에 '행함'을 플러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의 개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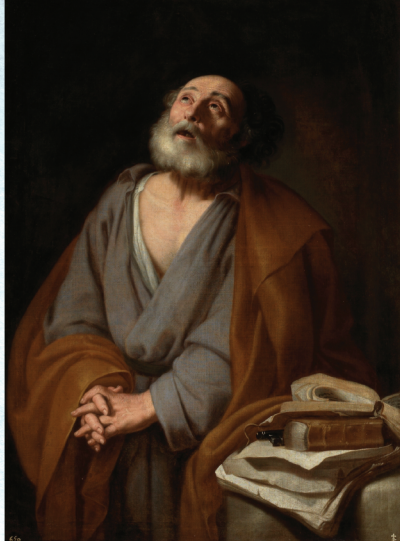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한다.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았다"고 하니 참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고 누구도 말하기 때문이다(롬 3:28; 5:1; 갈 2:16 등). 왜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안 좋게 여기고 '지푸라기 서신'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야고보는 '이행칭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서로 다를 뿐이다. 사용하는 단어는 같지만 그 가리키는 바 의미가 다른 것이다.

우선, '의롭다 함 받는다'(dikaioumai)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 바울은 이 용어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 죄 용서를 선인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법적적 의미로 사용한다. 이에 반해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곧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는다, 분명히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둘째로, '행함' 또는 '행위'(erga)의 개념도 다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 받으려는 인간의 노력, 공로라는 의미로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행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행함이다.

이처럼 각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데, 이런 의미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도 같은 것으로 보면 안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기가 '마마'라고 하면 어머니(mother)란 뜻이다. 그러나 공중에서 임금을 보고 '마마'라 하고 중전이나 왕자를 보고 '마마'라고 부르면 그것은 왕족이나 궁중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또 의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마마' 걸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연두'란 뜻이다. 이처럼 같은 단어도 하더라도 뜻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런 의미상의 차이를 무시하고서 '마마'라는 단어가 나타 나면 무조건



'어머니'란 뜻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선 왕조실록을 보고서 조선 시대에 대한 신들이 임금을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헛소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야고보가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고 했지만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고 했다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와 야고보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다.

우리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고보는 바울과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교계의 악수를 하였다고 한다(갈 2:9).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다만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을 부탁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고 말하였다(갈 2:10).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 또한 구제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과 서민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이고, 또한 바울이 힘써 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참 경건인 것이다.

2020학년도 졸업식이 지난 5월 21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처장 한기원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미란 사모의 꽃무늬 연주, 졸업생 안전장 컨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문흔 목사(포도원교회)는 "실력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사 전성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교무처장 강순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서는 총장 김성수 박사가 학위 수여와 훈사를, 총회장 이신구 목사와 이사장 정재훈 박사, 에들린 박사(Dr. Richard Edlin)가 축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졸업생은 문학사(BA) 안경자, 문학석사(MA) 강영진, 목회학 석사(M. Div.) 윤성희 이상호 이해영 정월모 등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6월 29일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거행된 한국 졸업식은 임두식 목사가 인도한 예배에서 김한중 선교사의 기도, 진종신 박사의 성경봉독, 채유정 집사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에스라의 계보를 이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한 후 강영구 목사가 축도했다. 2부 학위 수여식은 대외부총장 황은선 박사의 사회로 최석 박사의 학위 수여자 호명, 총장 김성수 박사의 학위 수여와 훈사, 교무처장 강순혜 박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공적조서 낭독, 김성수 총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이사장 정재훈 박사·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고려학원 이사장 김종철 목사의 격려사, 전 고려신학대학원장 변종길 박사·전임총회장 윤현주 박사·우상민 박사의 축사, 나무연 선교사의 축가, 졸업생 강현우 박사의 답사, 최대근 박사과 김한준 선교사의 공경일 박사 답사 대독, 에반겔리아 대학교 후원금 전달, 최석 박사의 파송의 기도로 진행했다. 이날 목회학 박사(D. Min.) 학위수여자는 김세명 강현우 박부근 손은옥 윤태진 이동희 최경선 최준 최하연 등 아홉 명이었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공경일 목사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최대근 선교사에게 명예 선교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공경일 목사는 24년 동안 부속된 바 있던 6대 가정교회 원로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중국성교신학원을 설립해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중국국제목회학 연구원을 설립, 가정교회목회학 재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최대근 박사는 서울에서 노숙자, 독거노인, 쪽방촌 선교사 역에 힘써 왔으며,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선교에 팔복할만한 헌신을 해 왔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학,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도 가져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 17일에 줌으로 진행되었다. 교무처장 강순혜 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평가처장 황진기 박사의 기도, 총장 김성수 박사의 '그리스도의 종(로마서 1:8)'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다. 개학식은 "교회와 세계의 사역을 위해 지구촌의 하나님 자녀들을 준비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 선언 낭독과 함께 강순혜 박사가 교육 목적과 교육 결과와 학교 약사를 소개하고, 본교의 교육 철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것을 강조하는 코람데오(Coram Deo) 정신임을 강조 했다.

이어 우영중 기획처장은 본교의 교직원들을 소개하면서 EU에는 18명의 전임교수진과 18명의 강사진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11명의 원거리 교육 지역 디렉터들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 등 세계 각지에서 원거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입학처장 황현조 박사가 신입생 소개와 인사가 있었는데, 학사과정에는 영어부에 우간다 17명, 차드 1명, 남아공 2명, 필리핀 3명, 페루 1명 등 모두 24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했고, 한국어 과정에 2명의 신입생이 있으며, 목회학 석사(M. Div.) 영어 과정에는 인도 1명, 필리핀 1명, 태국·미얀마 2명, 한국어 과정에는 5명의 신입생이 공부하게 되었다. 문학석사 종교학(MAR) 영어과정에는 2명, 한국어 과정 1명, 교육학박사 과정 2명, 목회학박사 과정에 1명 등 총 41명의 신입생이 등록했음을 밝혔다.

2021 가을학기 개강예배와 특강 개최 남아공 Ernest van Eck 박사의 '예수님의 비유'

EU는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8월 26일에 드렸는데, 서울영락교회 김윤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EU는 국제 프로그램이 확장 됨에 따라 영어부 경건회를 매주 수요일에, 한국어부 경건회를 매주 목요일에 갖고 있고, 종강예배는 12월 2일에 드린다.

EU에서는 가을학기 개학과 함께 개강 특강을 열어 남아공 프레토리아대학교 어네스트 반 에크(Dr. Ernest van Eck) 교수의 "갈릴리 상방에 비취분 예수님의 비유들"(Is there a parable in the room? -The parables of Jesus the Galilean)"이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하였다. 선교지를 중심으로 한 영어부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과 때를 맞추어 에크 박사의 특강이 개설해, 영어권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세 주에 걸친 특강에서 에크 박사는 "사회변혁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비유",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비유에 접근하는 법,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잔치 비유", "거저서 비유", "잃은 양의 비유"를 이해하도록 안내했다. 강좌는 줌으로 진행되었고, 강의 링크와 동영상, 한국어로 번역된 강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EU 홈페이지(www.evangelia.eu)에서 볼 수 있다.

재미총회와 함께하는 신학교육 발전,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와 목회대학원 개설

EU는 재미총회와 함께하는 신학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M.Div.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포럼을 6월 2일 줌으로 개최하였다. 교무처장 강순애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칼빈대학 강연회 교수가 발제하고 총회장 이신구 목사, 총회신학위원장 이기성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김성수 교수, 도르트대학 조직신학교수 심재승 박사가 진지한 토론과 참여한 목회자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별도로 EU와 총회신학위원회(위원장 이기성 목사)와 공동으로 매년 목회자를 위한 학기목회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첫째 프로그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줌으로 개최했다. 19일에 열린 개회예배는 신학 위원장 이기성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전남진 장로가 기도하고 총회장 이신구 목사가 설교 후 부총회장 정지호 목사가 축도하였고, 이어 김성수 총장이 환영사를, 이사장 정재훈 장로가 축사를 하였다. 이 강좌에서 류용필 박사는 주제 특강에 이어 성경적 강해설교, 설교 작성법과 전달법, 창세기 해석과 설교 작성의 강의를 통해 설교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특강을 맡은 제경태 박사(전 고신대 교수, 생동교회 담임)는 "절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두진 박사(CTC 강사, 예수나눔교회)는 "왜 댄 캐러긴?"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EU, 신규 교수 4명 임명 6월부터 합류, 새로운 역할 기대대...



EU는 지난해 교육학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그리고 올해 신교학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또 ATS 정회원교 준비를 하면서 교수 4인을 보강했다. 교무회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6월 1일자로 임명된 교수들은 나삼진(기독교교육학, 교수), 김은수(실천신학, 교수), 황진기(신약학, 교수), 황성민(기독교교육학, 조교수)이다.

나삼진 교수는 고신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탈북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전공하여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고, 고신대 대학원에서 신앙발달이론과 교육목회로 Ph. D를, 풀러신학교에서 교회 행정으로 D. Min, 학위를 받았다. 한국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대표간사와 원장으로 29년 동안 사역했다. 김은수 교수는 고신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과 호주 등지에서 수학하였고, Charles Sturt University와 한남대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신학박사 학위(Th.D. in Ministry)를 받았다. 독일 선교사로 파송받아 독일 한인교회들을 개척하여 섬겼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황진기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Th.M., 풀러신학교에서 신약 전공, 구약 부전공으로 Ph.D를 받았다. 풀러신학교의 교수와 조지아스텔트 신학교 교수, 풀러신학교의 한국 목회학박사 과정에서 디렉터, 조지아스텔트 신학교에서 대학원장으로 봉사했다. 황성민 교수는 고신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 중에 있다.

신교학 석사·박사 과정 개설

EU는 TRACS로부터 신교학 석사과정과 박사 과정 인가를 받아 새학년도에 과정을 시작해 신교학에 관심있는 목회자들과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신교학 석사 과정은 준비과정 6학점, 성경과 신학 12학점, 코어 코스 30학점, 선택 9학점, 인턴십 200시간 3학점 등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신교학 박사 과정은 리서치 코스 3학점, 코어 코스 21학점, 선택 6학점, 필드 스터디 100시간 2학점, 논문 6학점 등 모두 38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신교학 박사 과정에 네 명의 학생이 입학, 학업을 시작했다.

스페셜 리포트

EU의 국제화 활성화 COVID-19팬데믹 상황에서 선교중심대학으로 재편 중

Evangelia University가 국제화 프로그램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받고 있는 EU의 국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가나 M.Div. 프로그램

아프리카 가나에 25명의 M.Div. 학생들이 있다. 2020년 봄에 15명, 2021년 봄에 10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안수받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후가박사가 디렉터를 맡아 학생 모집과 학생 수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후가 박사의 상담센터에 모여 강의를 시청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모여 함께 공부하고 있다. 가나 M.Div. 프로그램을 위해 무릎을 통해 강사가 제공되며, 인터넷이 열악한 지역은 녹화된 영상과 자료를 보내고 있다. 조셀린 후가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Philadelphia, PA)에서 상담 전공으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고, 가나 쿠마시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교단의 노회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사역자 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몽골 BA 프로그램

몽골에서는 20명의 BA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Baggie 장로와 Pujee 교수가 디렉터로 섬기면서 학생들의 모집과 수강 지원에서부터 교재를 몽골어로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맡아 수고하고 있다. Pujee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담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남편과 함께 서울의 몽골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Baggie 장로는 올린바토르의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며 설교와 교육 등을 통해 사역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현재 몽골 대동부 부속실의 정석 담당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간다 BA 프로그램

우간다에서는 세 명의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BA 과정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미총회 파송 김세현 선교사는 우간다 리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현재 15명의 학생들의 원거리 교육을 공부하고 있다. 우간다에는 인터넷이 열악한 환경이어서 주로 선교센터에 모여 공부하고 있다. 송희완 선교사는 수도 캄팔라 지역에서 주로 상담수 피난민을 대상으로 선교센터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9명의 학생들이 속삭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를 통해 기독교 사역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진현 선교사는 수도 캄팔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으며, 2021년 가을 학기부터 17명이 BA 과정에서 공부하게 된다.

필리핀 BA 프로그램

필리핀 세부에서는 남수수 선교사와 협력으로 10여 명의 BA 과정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알라방 지역에는 Jojo Baldo 목사와 협력으로 Lighthouse Christian Fellowship에 소속된 5명의 목사들이 M.Div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EU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타이월드와 미안마, 인도와 몽골, 남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등지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기독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선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EU 후원자 명단

(미국 접수분, 6.1~8.31) 귀만 인금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역구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 갈보리장로교회 (원처의 목사) 거주남교회 (김일신 목사) 덴버소망교회 (안진훈 목사) 로렘장로교회 (박일홍 목사) 뎀터장로교회 (박종창 목사) 새벽이슬교회 (윤재규 목사) 새하늘교회 (김성덕 목사) 살렘한인교회 (전병국 목사) 십자가교회 (양성일 목사) 일간사 제자교회 (전남수 목사) 양우리교회 (배상환 목사) 예수문장교회 (전성철 목사) 오렌지카운티 살렘교회 (나심진 목사)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 유진장로교회 (전병두 목사) 필리델피아제일장로교회 (강학구 목사) 하늘꿈교회 (정인식 목사) 호산나평화교회 (강현구 목사)
이영규 목사 메모리얼 선교교 김순혜 교수 김영수 총장 김명열 박사 David S. Shin 의사 이광수 장로 이호복 장로 정환식 이사 최경균 장로 한기원 교수 한기철 집사 Paul Chun 장로 Ester Foundation Angela Myoung Shin-Kim